

‘땀 세상’ 이야기로 ‘이 세상’을 말한다

「山詩」퍼낸 원로시인 徐廷柱씨

詩歷 60년을 헤아리는 원로시인 末堂 徐廷柱(72)의 새 시집 「山詩」(민음사)가 우리에게 주는 감흥은 남다르다. 그것은, 그가 문학사적 시인일 뿐 아니라, 아직도 정력적인 창작행위의 지속으로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시인임을 일러준다.

‘원로’라는 말에서 흔히 연상되기 쉬운, 발달한 생명력의 결핍은 이 시집에 관한 한 별무상관이다. 능글맞은 정도로 유장한 가락 속에, 세계 각국의 산들을 매개로 하여 그 산들이 단순한 사물로서의 산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상징의 덩어리임을 보여주는 이 시집에서 우리는, “한국시문학사는 그를 언어의 政府로서 논술할 필요가 있다”는 한 후배시인의 언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山詩」에는 전세계의 대표적인 산들이 등장한다. 서정주는 이 시집 속에서 세계를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로 구분, 각 나라에 솟아있는 산들을 시적 모티브로 삼아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 사상, 문화, 종교 등을 그의 독특한 시적 감수성과 상상력의 체계속에 총체적으로 포용하고 있다. 평론가 정효구의 지적대로 이 시집 「山詩」는 “전세계에 솟아있는 실제의 산들을 소개해주는가 하면 각 나라의 본질을 시적 감수성에 의하여 상징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데, 시인 스스로는 그의 ‘自序’에서 이렇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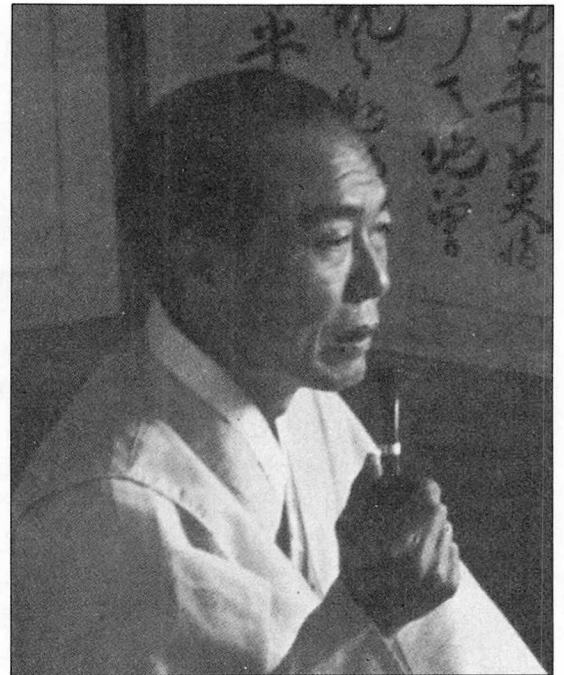
“이 세계의 山詩들의 내용 속에다가는 그 산들이 소속해 있는 나라들의 신화와 전설과 민화들을 밟지 않게 깔기에 주력하였고, 거기 불가불 어리어 나오는 각기의 사상성에 대해서도 내 주전을 되도록 줄이고 그 각기의 특

장점으로 보이는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에 마음을 썼다.”

그 마음씀의 결과는, 최근 몇년 사이 젊은 시인들의 위세와 그들에 대한 압도적인 관심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 대접을 받지 못해 왔던 원로의 존재를 새삼스레 인식케 할 만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질마채신화」(1975) 이후 그가 인상적으로 펼쳐보이고 있는 이야기시의 형식, 신화와 전설의 세계를 현실의 문맥으로 영입하는 기술, 대상을 해학과 웃음의 정신으로 용해시키는 능력, 비합리의 세계를 역사적 사건과 조화시키는 기술 등이 이 시집 「山詩」에서 고루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능숙한 이야기꾼 같은 여유있는 입담 속의 넉넉하고 따뜻한 해학의 정신은 이 시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의 가장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이다. 아무렇게나 뽑아본 비교적 짧은 분량의 작품인 다음의 「아이오아의 유일한 산」 같은 데서도 그런 즐거움은 쉽게 확인된다.

“아이오아 사람들은
옛날 중국의 老子처럼
無名을 좋아해서요
씨브리村 옆에
나지막한 山 하나 달랑 있는 것도
아직 이름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놓아 두었어요”
시를 읽는 독자의 긴장감을 한순간의 유쾌한 웃음으로 풀어주는 이 해학의 정신은, 신화와 전설 등 초역사적이고 비합리적인 내용을 현실이 문맥에 결합시키는 미당 특유의 시적 방법론에 연계될 때 가장 ‘서정주적인 개성’으로

세계 각지의 산들을 매개로 하여 그 산들이 단순한 사물로서의 산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상징의 덩어리임을 보여주는 이 시집에서 우리는 “한국시문학사는 서정주를 언어의 정부로서 논술할 필요가 있다”는 한 시인의 언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서정주씨

빛을 발한다. 가령, “세상 새끼들 지랄하는 게 / 하도나 꼴보기가 싫어서/ 티베트의 하느님은 / 히말라야 산맥 위의 하늘의 거실에서/ 매양 두 눈뿔경을 더피고만 지내기에...”로 시작되는 「히말라야의 하느님과 나」에서 우리는, 마치 ‘땀 세상’ 이야기 같은 구수한 서사적 줄거리를 흥미롭게 좇으면서 ‘이 세상’의 일에 대한 강한 비판의 의미를 읽어내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미당의 이같은 시적 방법론은 때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른바 ‘몰역사적’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인 것으로, 이번 시집 「山詩」의 경우에도 그런 지적의 적실성은 결코 적지 않

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같은 미당의 몰역사성 속에 흔히 역사적인 것으로 일컬어지는 것들 보다 오히려 더 진솔하고 구원한 우리들 삶의 리얼리티가 배어있다는 평가 또한 설득력있게 개진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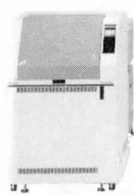
그런 점에서 「山詩」를 통해 “서정주 詩의 또다른 자기갱신”을 발견하는 평론가 이남호의 “황당하고 아리송하면서도 기발한 감응력을 지닌 서정주 시인의 이 새로운 작업이 우리 시의 지평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것인가”하는 궁금증은 곧바로 우리들의 궁금증이 되기도 할 것이다.

— 강철주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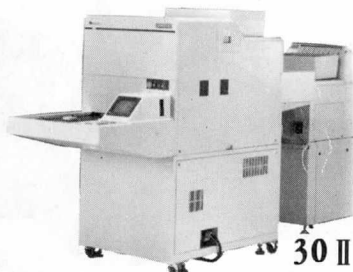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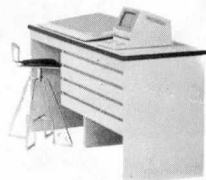
단색 SCANART 450 II - 국반절 Size 초스피드 실현

“편집자의 창조력에 보답하는 製版시스템”

- 인공지능을 내장한 Hi-Tech 제판라인은 시간경쟁의 추종을 불허
- 초고속·정밀도로 시간낭비와 인력소모를 배제합니다.
- 네거티브 가격으로 포시티브제판을 봉사해 드립니다.



450 II



30 II

※ 시간약속은 금,
정밀은 신용!
믿고 맡기십시오!!

- 국내 최대 Size(국반절) 입출력
- 고속스캐닝으로 대량 신속처리
- 멀티 디지털 시스템으로 작업효율 향상
- 두꺼운 원고 자유자재 입력
- 토달편집 기능으로 더욱 선명한 화질

우성사

서울시·중구 충무로4가 56-1 (신도빌딩 2층)
TEL: 272-2864 · FAX: 275-7016